윈도7, 기술지원 종료 PC 보안 공백 어쩌나

윈도7, 국내 PC점유율 20%이상
사용 가능하지만 MS서 업뎃 안해
새로운 바이러스·해킹 등에 취약
"OS 업그레이드로 감염 줄여야"

오는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제(OS) '윈도7'의 기술 지원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보안 공백으로 인한 피해 속출이 우려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14일 이후에도 윈도7을 계속 사용할 수는 있지만, MS가 업데이트를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새로 등장하는 바이러스나 해킹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 MS와 보안 업계 등은 하루빨리 윈도7을 새 버전인 윈도10으로 업그레이드하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윈도7을 사용하는 국내 PC 점유율은 2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일랜드의 시장조사 업체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달 PC OS 점유율 조사에서 윈도7은 21.9%를 기록했다. PC 5대중 1대는 여전히 윈도7을 쓰고 있는 셈이다.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ESRC 센터장은 "현재 윈도7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윈도10 등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 운영체제 취약점과 결합한 랜섬웨어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MS 박범주 전무는 "윈도10으로의 전환은 각종 사이버 위협 및 침해로부터 보안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MS는 1년 전 윈도7에 대한 보안 지원 종료를 예고하면서 그간 무료 업그레이드 행사를 진행하는 등 윈도10 사용을 지속해서 유도해왔지만 아직도 국내에서 적지 않은 윈도7 이용자가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탓에 윈도7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악성 코드·바이러스 등이 유포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윈도XP에 대한 기술 지원이 끝났을 당시에도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150개국에서 PC 30만 대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단체와 손잡고 윈도7 기술지원 종료 이후 보안 사고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윈도7 기술지원 종료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윈도7 기술지원 종료 후 발생하는 악성 코드 등 사이버 위협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악성 코드 발생 시 백신업체와 협력해 맞춤형 전용 백신을 개발, 공급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 업무를 맡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현황을 살피고 있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윈도7 사용 PC 309만대 가운데 99%(306만대)를 기술 지원 종료일 전에 윈도10 등 상위 버전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나머지 3만대는 교육·실험용으로 쓰이거나 윈도10 교체 시 작동에 문제가 생겨 호환성을 확보한 이후 교체하게 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국민의례 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자용 1차장, 이 지검장, 신봉수 2차장. /손진영 기자 son@

곧 설인데… 中企 절반 자금사정 '곤란'

중기중앙회, 808곳 대상 조사
"자금사정 원활하다" 11% 불과
기업규모 적을수록 '곤란' 답해

설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절반은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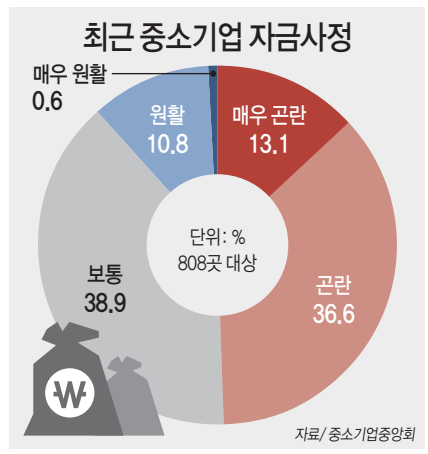
중소기업 1곳당 평균 2억4190만원이 필요하지만 이 가운데 74.2%인 1억7960만원만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설 평균 상여금은 기본급의 46.3%, 또는 현금 6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 808곳을 대상으로 '2020년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 13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9.7%는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반면 '원활'하다고 답한 기업은 11.4%에 그쳤다.

'자금 사정 곤란' 업체 추이는 2018년 47.8%, 지난해 50.8%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매출액 기준으로 10억원 미만 기업은 64.9%가 '곤란'하다고 답해 기업 규모가 적을수록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모습이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으로는 '판매부진'과 '인건비상승'이 각각 52.9%(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부자재 가격상승'(22.4%), '판매대금 회수 지연'(22.2%), '납품대금 단가 동결·인하'(20%), '금융기관 이용곤란'(10.2%) 순이었다.

올해 설에 필요한 자금은 전년의 2억2060만원보다 2130만원 늘어난 수치다. 기업들이 확보한 자금은 전년(1억4920만원) 대비 금액은 3040만원 늘어난 것이며, 확보 비율도 전년(67.6%) 보다 6.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설 자금 부족률은 업종별로는 제조업(26.6%), 지역별로는 비수도권(26.5%), 판매형태별로는 내수기업(29.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족한 자금은 '결제연기'(49.6%), '납품대금 조기 회수'(39.8%), '금융기관 차입'(30.9%)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74.2%의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대출관행'(33.2%)이나 '대출한도 부족'(32.9%), '높은 대출금리'(26.3%) 등으로 은행 문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89.5%는 설에 '4일' 휴무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환경이 개선됐지만, 경영부진 심화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자금 곤란을 호소한다"면서 "올해도 설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설 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은행권과 정책금융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구직급여 지급액 年 8조 돌파

고용부, 전년 4753억 보다 27% 증가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038억원으로, 전년 동월(4753억원)보다 27.0% 증가했다.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모두 8조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조4549억원)보다 25.4% 늘어난 금액이다.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다. 구직급여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

작년 12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37만6천명)보다 11.4%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44만원이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8만3천명)보다 15.7% 늘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1만명(3.9%) 증가했다. 연간 증가 폭으로는 2007년(51만400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해당 연도 매월 말 가입자 수의 평균치다.

작년 1~11월 상용직과 임시직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71.9%였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에서는 변동 폭이 큰 일용직과 임의 가입 대상인 자영업자는 제외됐다.

/석대성 기자 bigstar@

고령화가 금리 끌어내렸다

한은, 1995년 9%→2018년 6%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금리를 3%포인트 끌어 내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은퇴 이후 생존 기간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이 증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금리(명목금리-소비자물가상승률)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 1995년 약 9.0%에서 2018년 약 6.0%로 3.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실질금리 하락분(8.6%포인트)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연구팀은 인구 고령화를 ▲인구 증가율 하락 ▲기대수명 증가 등의 요인으로 노령인구 부양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인 인구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실질금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기업과 가계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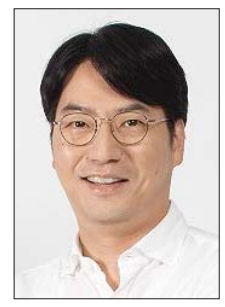
이들은 인구 증가율, 기대수명, 노령인구 부양비율이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데이터와 매우 유사하게 움직일 경우 실질 금리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지난 20년간 급속히 진행됐다. 우리나라 노령인구 부양비율은 2020년 기준 23.7%로 세계 평균 수준(16.3%)보다 7.4%포인트 높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1950년~1955년 47.92세에서 2015~2020년 82.44세로 뛰었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46.98세에서 71.95세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더 빠르게 고령화가 나타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면 소비가 줄어드는 반면 저축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하락한다.

/김희주 기자 hj89@

넷마블 신임대표에 이승원 부사장 내정



넷마블이 글로벌 담당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내정하며, 글로벌 영향력 강화에 나선다.

넷마블은 13일 글로벌담당인 이승원 부사장(**사진**)을 신임 대표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으로 넷마블은 기존 권영식 대표 체제에서 권영식·이승원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권영식 대표는 게임사업을 진두지휘하며 게임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이승원 신임 대표 내정자는 경영전략 및 글로벌 사업을 총괄한다.

넷마블은 "이번 각자 대표 체제 전환은 '강(强)한 넷마블' 실행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의 본질인 게임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